통계로 분석한 북한무역 특징과 추이

(분석방법) 대북무역 상대국(연도별 130~150여국)이 국제기구(UN, WTO)에 보고한 수출입 통계를 역산한 Mirror Trade 통계와 남북반출입 실적을 합산하여 북한의 대외거래를 종합하여 분석. 단, 2018년 남북반출입 통계(약 3천만$)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산가족 상봉, 철도·도로 조사 등 비상업적행사에 소요된 실적으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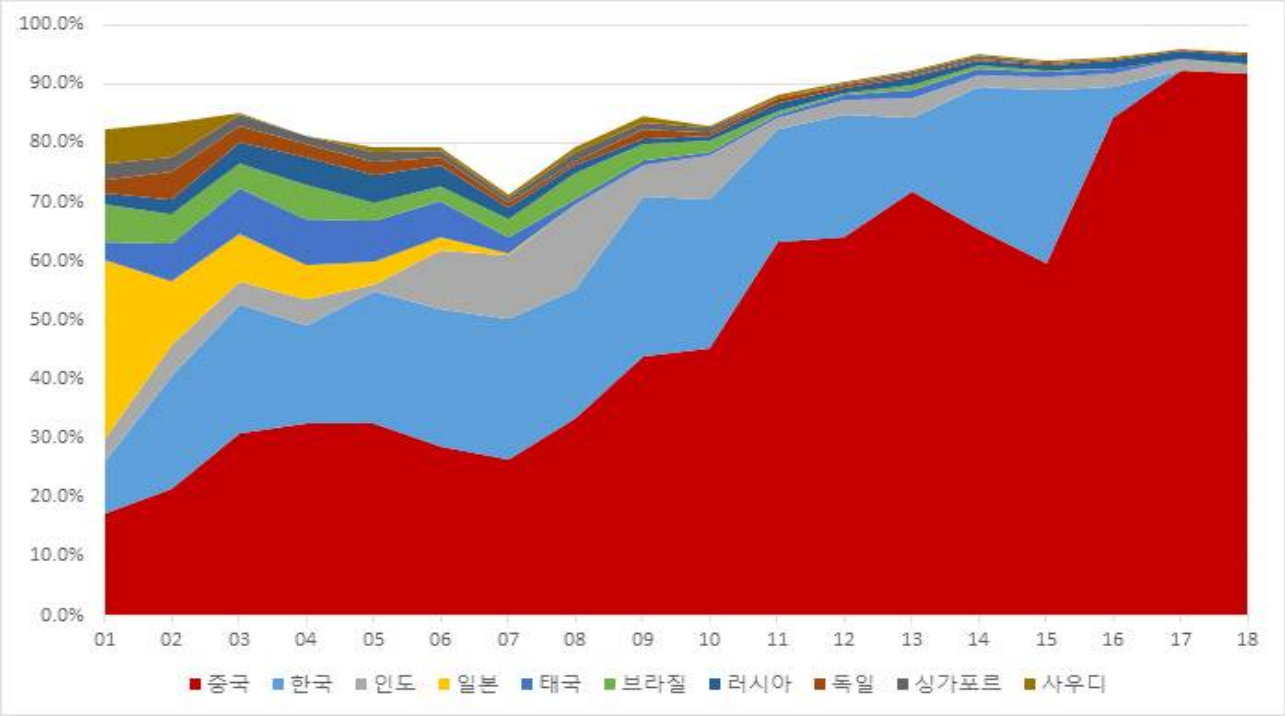
(통계출처)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 남북반출입통계 (원 출처: Trademap / 관세청 남북반출입통계)

1 2000년대 북한무역 추이 분석(2001~18년 북한 주요 무역상대국과 품목추이)

1. 북한 무역 10대 국가 추이

□ 2001-18년 북한 대외무역 상위 10개국의 비중 평균은 중국(50.3%), 한국(17.8%), 인도(4.7%), 일본(3.4%), 태국(2.7%), 브라질(2.4%), 러시아(1.9%), 독일(1.2%), 싱가포르(1.0%), 사우디(1.0%) 순

<그림1> 북한 무역 10대 국가 비중 추이(2001~2018)



주: 2001-18년 북한의 대외무역과 남북반출입통계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어 국가별 무역 비중 및 순위 산출
2018년 남북반출입 실적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산가족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 반출입으로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남북반출입통계

□ 2001-18년 북한 대외무역 평균 비중 상위 10개국외 연도별 북한의 10대 무역 상대국은 주로 멕시코, 파키스탄, 카타르 등 중동·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 다수

※ 북한의 일부 중동·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들 무역에 대하여 해당국 세관에서 남북한을 혼동하여 통계를 발표했다는 분석도 있으나 해당국 세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는 공식 세관통계를 기준으로 분석

<표1> 북한 무역 연도별 10대 국가 비중 추이(2001~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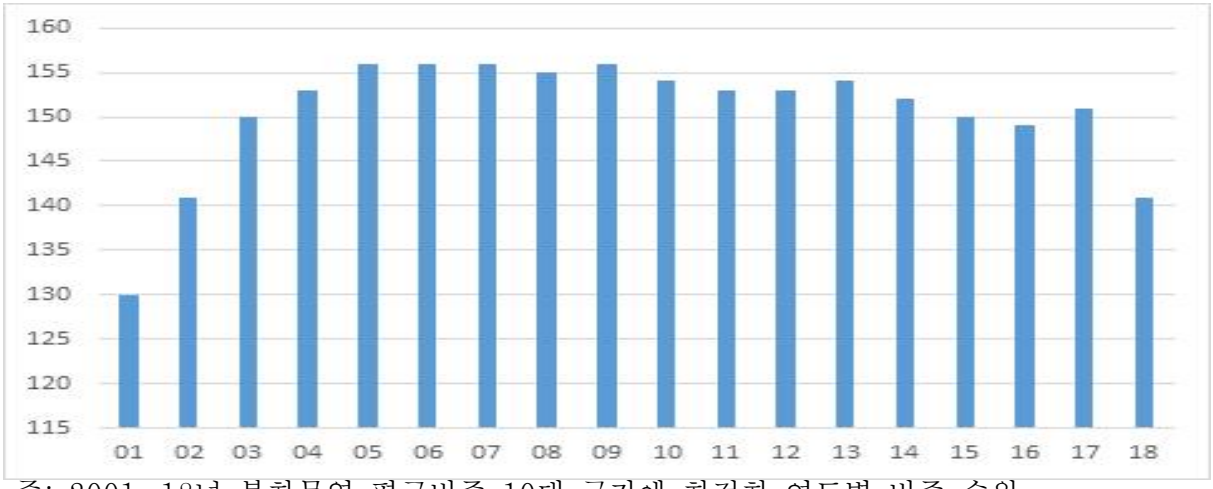
순위	2001(비중)	2005(비중)	2010(비중)	2015(비중)	2018(비중)
1	일본(30.1)	중국(32.5)	중국(45.3)	중국(59.3)	중국(91.8)
2	중국(17.3)	한국(22.4)	한국(25.0)	한국(29.3)	인도(1.4)
3	한국(8.8)	태국(7.0)	인도(7.5)	인도(2.3)	러시아(1.3)
4	브라질(6.3)	러시아(4.8)	이집트(4.4)	러시아(0.9)	잠비아(0.8)
5	사우디(5.7)	카타르(4.2)	남아공(2.9)	태국(0.9)	모잠비크(0.4)
6	인도(4.1)	일본(4.0)	브라질(1.9)	필리핀(0.7)	브라질(0.3)
7	태국(3.0)	브라질(2.8)	네덜란드(1.1)	파키스탄(0.5)	사우디(0.3)
8	멕시코(2.7)	독일(2.2)	러시아(0.8)	부르키나파소(0.4)	파키스탄(0.3)
9	싱가포르(2.7)	싱가포르(1.6)	멕시코(0.8)	우크라이나(0.4)	가나(0.2)
10	독일(2.4)	멕시코(1.6)	독일(0.8)	트리니다드(0.4)	독일(0.2)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남북반출입통계

□ 북한의 무역 상대국은 국제기구 통계상 2001년 130개국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0여 개국을 유지하였으나 강화된 대북제재로 2018년 141개 국으로 감소. 북한 무역 상대국중 <표1>과 같이 두자리 비중을 차지했던 국가는 한·중·일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인도·태국·러시아를 제외하고 대체로 1~2%이하의 낮은 비중

<그림2> 북한의 무역 상대국가 수 추이(2001~2018)

(단위: 국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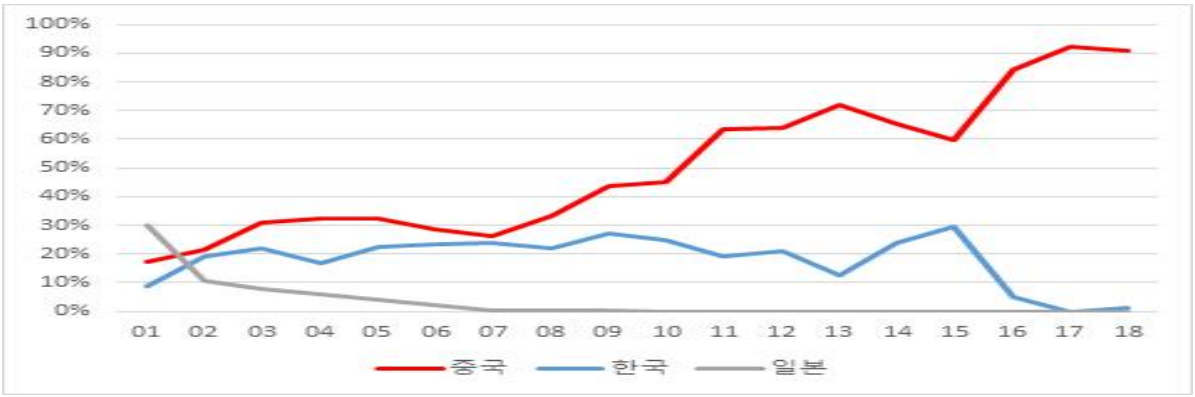
주: 2001~18년 북한무역 평균비중 10대 국가에 한정한 연도별 비중 순위
2018년 남북반출입 실적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산가족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 반출입으로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남북반출입통계

□ 2001년 일본·중국·한국 순에서 일본의 독자제재 및 개성공단 가동으로 인한 남북교역 증가로 2010년 중국·한국·인도 순으로 변화했고 최근 2018년에는 개성공단 폐쇄 및 강화된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인도· 러시아 순으로 변화

- **(한중일)** 북한과 한국, 중국, 일본간 교역은 상호 보완적인 구조보다 경쟁적인 구도로 이루어졌음. 2001년 북한의 대외무역 1위 상대국가였던 일본은 납치자 문제 및 안보관련 캐치올 규제 등으로 북한과의 교역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 기간 중국과 한국의 교역은 증가하였음. 한편 2010년 한국의 5.24조치로 개성공단 제외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자 북한과 중국간 거래는 급격히 상승하였고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더욱 증가하여 현재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90%의 비중을 점유

<그림2> 북한의 한·중·일 무역비중 추이(2001~2018)



□ **(인도·동남아)** 북한과 동남아간 교역은 2000년대 초반 약 10%내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인해 UN 대북제재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반면 인도의 경우 오히려 2006년 본격적인 UN 대북제재가 시행된 후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북한의 무역의 1~2% 내외 비중을 점유*

* 북한과 인도간 무역이 급격히 증가하였던 2006~10년 급증한 주요품목은 정제유로 북한의 대인도 수입이 급증 하였으며 북한산 TV용 수신기의 대인도 수출이 급격히 증가

<그림3> 북한의 인도·동남아 무역비중 추이(2001~2018)



□ **(러시아·독일)** 러시아는 2001-18년 북한 무역의 평균 비중 7위(1.9%)를 차지하였으며 주요교역품목은 정제유, 곡물의 대북수출 및 가구, 악기의 대북수입.* 독일은 동기간 동안 북한 무역의 평균비중 8위(1.2%)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교역품목은 - . 그외 네덜란드(0.7%), 프랑스(0.3%), 스페인(0.3%), 이탈리아(0.3%), 영국(0.2%) 등 유럽 국가들이 북한과 교역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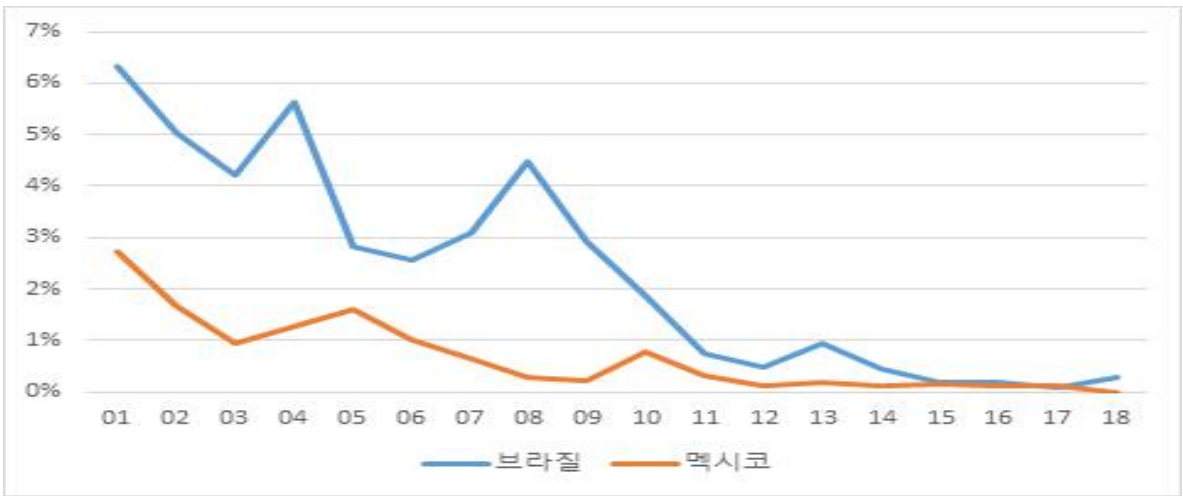
* 러시아는 북한의 접경국으로서 세관신고 공식통계외 연료 및 곡물 등 품목에서 원조성 지원 및 비공식 거래 가능성, 북한 건설·벌목 노동자의 극동지역 파견으로 인한 외화수입 등 다양한 경협관계가 존재

<그림4> 북한의 러시아·독일 무역비중 추이(2001~2018)



□ **(중남미)** 브라질은 2001-18년 북한 무역의 평균 비중 6위(2.4%)를 차지하였으며 주요교역품목은 정제유, 곡물의 대북수출 및 가구, 악기의 대북수입. 그외 멕시코(0.7%) 페루(0.3%) 베네수엘라(0.3%) 등이 북한과 교역이 있었음

<그림5> 북한 브라질·멕시코 무역비중 추이(2001~2018)



2. 북한 수출 10대 품목 추이

□ 2001-18년 북한 수출 상위 10 품목 비중 평균은 무연탄(18.8%), 철광석(4.2%), 남성 방한외투(2.1%), 여성방한외투(1.7%), 아연(1.6%), 정제유(1.6%), 오징어(1.3%), 남성바지(1.2%), 남성외투(1.0%), 견과류(0.9%) 순*

* 구체적인 품목파악을 위해 HS6단위 세부품목으로 분류

<표1> 북한 수출 10대 품목 추이(2001~2018)

(단위 : HS6)

순위	2001	2005	2010	2015	2018
1	기타연체수산물	무연탄	무연탄	무연탄	시계
2	채유용종자	기타연체수산물	철광석	인쇄회로	페로실리콘
3	게	철광석	정제유	남성방한외투	가발
4	정제유	아연	아연	면티셔츠	사출기계
5	전자집적회로	비합금선철	비합금선철	여성방한외투	텅스텐
6	마그네시아	오징어	여성하의	남성하의	전기에너지
7	남성정장	송수신기부품	남성방한외투	철광석	모형
8	전자집적회로	컴퓨터부품	송수신기부품	정제유	몰리브데넘
9	여성외투	송수신기	여성방한외투	남성외투	유리자재
10	입출력장치	철스크랩	오징어	은	진단용시약

주: 남북반출입 통계는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된 2016년 수치까지 합산하여 반영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 통계, 남북반출입 통계

□ **(수출품목 편중)** 북한은 70-80년대 이후 산업이 고도화 되지 못하여 제품 경쟁력이 부족하여 비교적 가공과정이 적고 매장량이 풍부한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등의 **광물**과 오징어, 견과류 등의 1차 산품,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의류 임가공 제품**에 편중된 수출구조

- 특히 무연탄, 철광석 등의 광물 수출은 2001-18년 북한 수출의 약 28% 의류 임가공 제품의 경우도 개별품목을 합산할시(HS61, 62 합산) 약 36%에 달하여 광물과 의류 임가공품 수출은 평균적으로 **북한 수출의 약 2/3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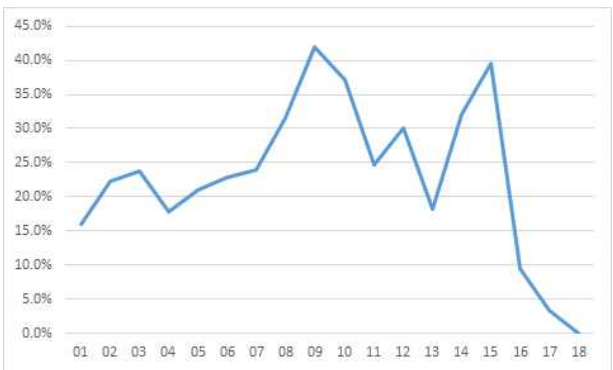
* 무연탄과 철광석을 포함한 대다수 광물의 수출은 2017.8월 UN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 따라 전면금수, 의류 임가공품 또한 2017.9월 UN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 따라 전면금수조치 됨

<북한 광물의 수출비중 추이>



* 주 : HS26, 27 합산치의 북한 연도별 수출대비 비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반출입통계

<북한 의류 임가공품 수출비중 추이>



* 주 : HS61, 62 합산치의 북한 연도별 수출대비 비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통계, 반출입통계

3. 북한 수입 10대 품목 추이

□ 2001-18년 북한 수입 상위 10 품목 비중 평균은 원유(6.9%), 정제유(3.7%), 경유(3.6%), 정미(1.8%), 대두유(1.3%), 대형화물차(1.1%), 유연탄(1.1%), 합섬직물(1.2%), 가공철광석(1.0%), 밀가루(0.9%) 순*

* 구체적인 품목파악을 위해 HS6단위 세부품목으로 분류

<표1> 북한 수입 10대 품목 추이(2001~2018)

(단위 : HS6)

순위	2001	2005	2010	2015	2018
1	현미	원유	중유	전자집적회로	대두유
2	원유	중유	원유	합섬직물	질소비료
3	에탄디올	쌀(정미)	경유	대두유	합섬직물
4	정제유	복합비료	철광석(응결)	중유	밀가루
5	옥수수	냉동돈육	LED	대형화물차	사과
6	철광석(비응결)	유연탄	대형화물차	휴대폰	담배
7	스티렌	옥수수	천연가스	경유	염색합섬편물
8	사료	요소비료	유연탄	TV	시계부품
9	요소비료	철강구조물	합섬직물	유연탄	과립당
10	화학비료	조당	비합금선철	조명부품	바닥재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 통계, 남북반출입 통계

□ **(연료수입)** 북한의 수입은 생활 및 산업생산 등에 필요한 원유 및 석유제품, 유연탄 등 연료수입이 가장 큰 비중*

* UN 대북제재는 민생용을 고려하여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북금수조치시 상한선을 적용하여 일부 수입을 허용(UNSCR 2397: 원유 연간 400만 배럴, 정유 연간 50만 배럴한도)

□ **(수입품목 다양화)** 북한의 수입은 석유를 제외하고 다양한 품목이 평균적으로 고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대분류상 석유(14.2%)를 제외 기계류(6.9%), 전자류(6.4%), 운송기기(4.3%), 곡물(4.1%), 플라스틱류(3.8%), 인조직물(2.9%), 철강(2.9%), 유기화학류(2.6%), 광물류(2.5%), 식용기름(2.0%) 순

- **(기계·전자)** 기계류와 전자류는 PC, 변압기, TV,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으나 제품과 부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세부품목으로 분류시 평균적으로 각각 1% 미만의 비중

- **(원부자재)** 수출에 필요한 원부재자재 및 기계류의 수입비중이 상당함. 북한은 광산개발에 필요한 굴삭기, 화물차, 타이어 등의 기계류와 **임가공 제품 수출에 필요한** 의류 및 전자부품 등 **원부자재의 수입이 상당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수입구조

- **(식량류)** 쌀, 밀가루, 대두유, 비료 등 식량 관련 수입수요는 꾸준하며 최근 식료품의 국산화 증대로 식량류 수입은 증가세

[2] 북중 무역통계로 분석한 북한무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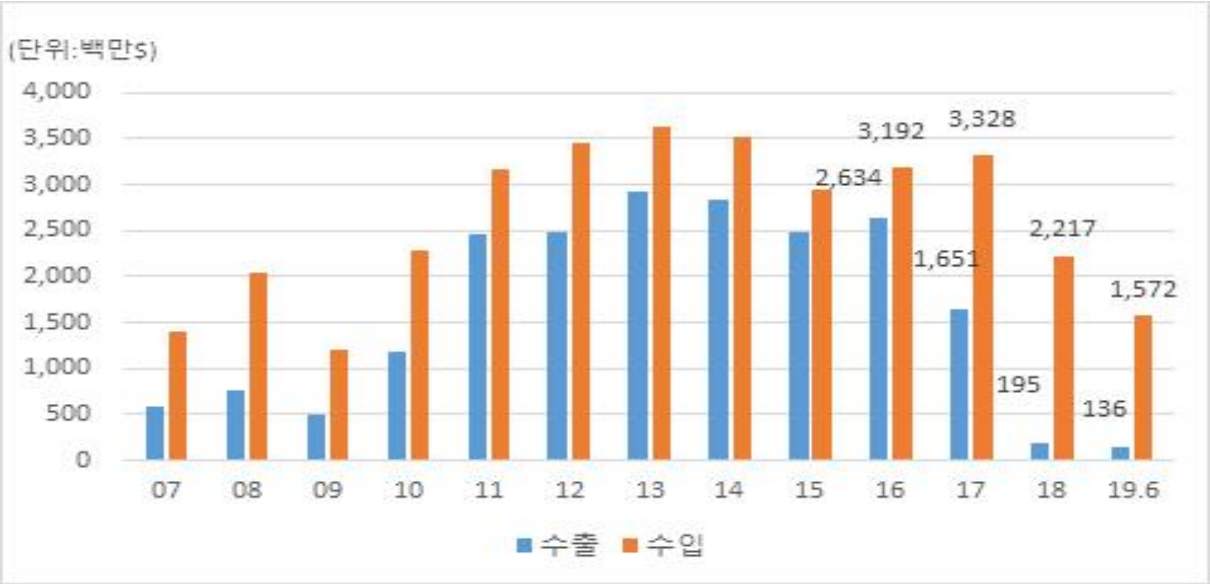
1. 북한-중국 무역추이

□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약 91.8%의 비중**을 차지하는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대북제재 이후에도 동맹국이자 접경국으로서 지속적인 교역을 이어오고 있음

- 북한의 對中 무역구조는 **수입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지속된 대북제재로 이러한 **적자 구조는 심화되고 있음**(2018년 △20.0억$, 2019년 6월누계 △10.4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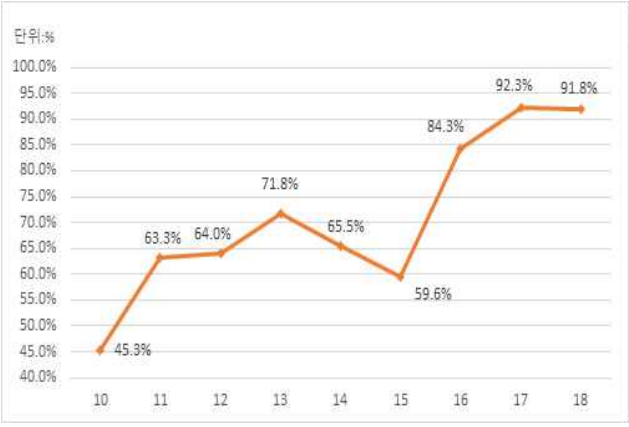
- 하지만 2019.2.28. **2차 북미회담 결렬이후 북중간 무역은** 非제재품목(식량, 시계, 가발 등)을 중심으로 오히려 **증가(2019년 6월누계 전년대비 15.3%↑)하고 있는 양상**

<그림1> 북한-중국 수출입 추이(2006~20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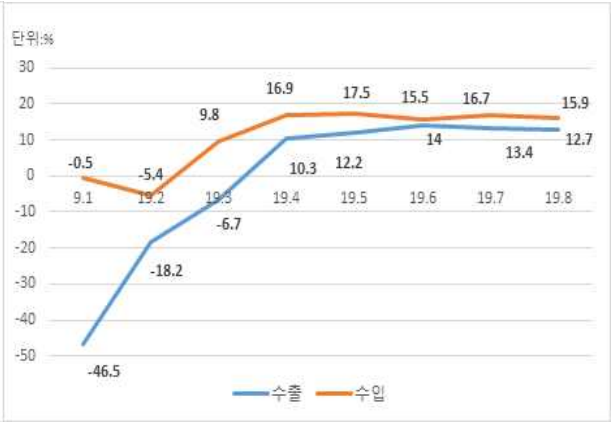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2> 북한무역에서 중국무역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3> 북한-중국 수출입 월별 증감율 추이



주: 증감율은 전년 동월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2. 북한의 중국수입 주요 품목별 동향

□ 최근 북한의 對中수입 주요품목은 非제재품목인 **식자재**(대두유, 밀가루, 과일, 글루탐산 등)와 **비료**, **임가공 재료**(시계부품, 합섬편물 및 직물)가 주를 이루며 수입시 한 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수입

□ **(제재품목)** 대북 수출제재(UN 안보리 결의안 2397호)로 기계, 전자 등 기존 북한의 주요 對中 수입품목들이 급감하였으나, 제재로 급감하였던 의류 임가공 원재료들(합섬 편물, 직물 등)이 다시 증가세

- 외국의 의류 임가공 원재료 대북수출이 제재대상은 아니나 이를 수입하여 가공한 의류 완제품을 북한이 수출하는 것이 제재대상으로 2017년 북한산 의류의 금수품목 지정 후 의류 원재료에 대한 대북수출이 급감하였었음

□ **(非제재품목)** 사과, 쌀, 대두유, 밀가루 등 **식자재**와 **비료**, 건축자재인 플라스틱바닥재, 시계조립을 위한 시계부품 등 非제재품목의 對中 수입증가 및 수입 상위품목 유지*

* 2019년 상반기 감소한 북한의 대중수입품은 2018년 큰 폭의 증가(2018.6월 누계 사과 98.9%↑, 밀가루 914.9%↑, 기타담배 239.0%, 질소비료 91.4%)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여전히 수입 상위품목 유지

(탈북민 C씨, 前외화벌이 간부) "사과와 감귤은 보관이 용이하고 값이 비교적 저렴한 과일로 예전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았음. 최근 몇 년사이 장마당을 통한 북한 근로자의 벌이 증가에 따른 구매력 상승으로 수요와 수입이 늘고 가격이 떨어졌음. 제재품목이 아니므로 북한 외화벌이 회사들이 북한내 유통 및 판매를 통한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수입이 늘었을 가능성도 있음"

- 비료는 UN 대북제재에 명시되어있는 품목은 아니지만 재료의 폭탄전용 가능성으로 인해 전략물자로 분류. 중국은 바세나르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비료거래 가능

<표1> 2019년 상반기(1~6월)품목별 북한의 對中수입 세부품목

(단위 : 백만$, HS6, %)

순위	품목명	HS코드	금액	비중	증감율
1	대두유	150790	50	4.4%	△6.5%
2	합성필라멘트직물	540769	44	3.9%	48.8%
3	시계부품	911490	39	3.4%	280.0%
4	밀가루	110100	36	3.1%	△9.2%
5	질소비료	310210	29	2.5%	△42.2%
6	합섬염색편물	600632	20	1.7%	△0.2%
7	기타담배	240319	20	1.7%	△13.8%
8	설탕	170199	16	1.4%	36.4%
9	사과	080810	15	1.3%	△64.4%
10	인섬워딩	560122	13	1.2%	30.9%
11	정미	100630	13	1.2%	551.5%
12	폴리우레탄직물	590320	13	1.2%	43.9%
13	감귤류	080521	13	1.1%	60.2%
14	궐련담배	240220	13	1.1%	41.0%
15	염색직물	540752	12	1.1%	18.8%
16	과립당	292242	12	1.1%	450.7%
17	생선분말	030510	12	1.0%	13.5%
18	플라스틱바닥재	391810	12	1.0%	11.5%
19	화물용타이어	401120	12	1.0%	90.8%
20	신발	640399	11	1.0%	41.4%

주: 증감율은 전년 동월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식자재/임가공/국산화)** 북한의 對中수입품목은 주로 대두유, 밀가루, 과일, 글루탐산 등의 **식자재**와 시계부품, 섬유직물 등의 **임가공 원재료***가 주를 이룸

- 북한은 제재로 인한 유휴 노동력 활용과 외화수급을 위해 非제제 품목인 **시계임가공을 개발하여 시계부품 수입을 늘렸으며** 의류임가공의 경우 대북제재로 북한산 의류수출이 금지되었지만 의류 원자재의 북한반입이 금지되어있지는 않아 **최근 의류 원자재에 대한 북한의 수입증가는 비공식적인 경로의 의류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케 함**

- 설탕, 글루탐산, 밀가루 등의 **식자재**와 신발, 직물 등 **섬유 원자재** 수입증가는 최근 북한이 **식료품을 중심으로 경공업/소비재 분야에서 높은 국산화를 보이고 있는 점과 관련**

3. 북한의 중국수출 주요 품목별 동향

□ 북한의 對中수출은 제재로 인한 석탄과 의류임가공 금수조치로 현재 수입에 비해 미미하며 **제재를 피해 시계, 가발, 축구공 등 일부 임가공 제품**과 **텅스텐, 몰리브데넘 등 일부 광물류**로 한정

□ **(제재품목)** 기존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과 의류 임가공품의 수출금지*로 2017년부터 동 제품의 수출이 급감하여 현재는 공식적인 통관이 없음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371호(석탄수출 전면금지) 2375호(섬유수출 전면금지)

- 페로실리콘(HS코드 720221)의 경우 광물이 들어간 합금으로 대분류상으로는 제재대상인 HS코드 72류에 속하나 중국정부에서 제재대상인 금속이 아닌 실리콘으로 해석하였을 여지

□ **(非제재품목)** 제재로 어려워진 외화수급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활용한 **非제재 임가공품목**(시계, 가발, 축구공 등)과 **非제재 광물류**(몰리브데넘, 텅스텐* 등)의 수출증가

* **북한산 텅스텐**은 수출 **非제재품목**으로 2018년 상반기(6월 누계) 대중수출이 전년대비 **2,225%급성장**하였고 올해는 역기저효과로 작년대비 19.6%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수출 상위품목

- 북한이 최근 중국으로 수출에 있어 **非제재품목의 비중을 늘리고 있으나** 북한이 가진 자원과 외부수요를 감안할 때 과거 주력 수출품목인 **석탄과 의류 완제품을 대체하기엔 매우 작은 규모**

<표2> 2019년 상반기(1~6월)품목별 북한의 對中수출 세부품목 >

(단위 : 백만$, HS6, %)

순위	품목명	HS코드	금액	비중	증감율
1	시계	910811	31	29.5%	296.7%
3	페로실리콘	720221	13	12.4%	19.3%
2	가발	670419	12	11.3%	36.2%
4	텅스텐	261100	7	6.5%	△19.6%
5	모형	902300	7	5.4%	26.4%
6	전기에너지	271600	5	5.1%	54.0%
7	몰리브데넘	261390	4	4.0%	68.1%
8	플로트유리	700529	3	3.1%	△8.1%
9	축구공	950662	3	2.7%	675.4%
10	신발부분품	640610	3	2.5%	215.0%

주: 증감율은 전년 동월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3 결론 및 시사점

□ 2000년대 북한 무역은 **대외정세변화와 대북제재에 따라 무역 상대국이 변화**

- 일본은 2001년 북한 대외무역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상대국이었으나 납치문제 및 대북제재로 인해 무역이 급감하여 2007년부터 사실상 교역이 중단됨
- **한국**은 2001년 이후 **북일교역 급감**과 더불어 **개성공단 활성화**로 북한과의 교역이 급증하였으며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전까지 중국에 이어 북한의 2대 교역국**
- **중국**은 북한의 **특수관계 동맹국**으로서 200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북교역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 **한국의 5.24조치에 따른 남북교역 중단**,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교역의 전면적 중단**으로 인한 **북한 무역전환의 효과로 현재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
- 한중일을 제외한 북한의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는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의 남방국가들과 러시아, 독일 등의 유럽국가,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이 있음

□ 북한의 수출은 낮은 산업경쟁력으로 **1차 산품과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 제품에 의존하는 구조**

- 2001~18년 북한 수출은 무연탄, 철광석 등 광물 수출이 평균적으로 약 36%, 의류 임가공품이 약 17%로 광물과 의류임가공품의 수출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편중된 수출구조
- 일부 기계(7.9%)와 전자기기(6.8%) 수출은 전자집적회로, 공조기 등 임가공 중간재가 다수
- 수산물(6.3%), 과채류(1.2%) 수출은 오징어, 명태, 게 등 신선신품과 임가공 식품 중심

□ 북한의 수입은 2000년대 들어 가속화된 시장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품목과 규모

- 북한의 수입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됨. ① 원유, 정제유, 코크스 등의 **에너지 수입** ② 광산개발을 위한 화물차, 굴삭기, 타이어 및 임가공 제조를 위한 섬유직물 원부자재 등 **수출을 위한 수입** ③ 쌀, 옥수수, 사료, 감미료, 비료 등 민생관련 **식량류 수입** ④ 최근 기술의 발전과 시장화 확산으로 인한 **공산품(전자제품) 수입**
- 원유, 정제유 등 에너지 수입(HS2단위 26,27류)의 2001~18년 평균이 10%를 상회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은 편중됨 없이 고른 수입분포

□ 향후 대북제재가 유예/완화/해제될 경우 경쟁력과 수요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북한의 교역상대국이 한국, 일본 등으로 다변화될 가능성**

- 국경을 맞댄 중국과 북한의 특수 관계와 중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감안할 때 대북 무역에서 어떤 국가든 중국보다 높은 점유율 차지할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는 일부 소재·부품, 화학제품, 가전·소비재 분야와 북한 내 임가공 활성화시 **중간재 대북수출과 완성품 대북수입 등에서 한국과 일본 등의 기존 주요 무역상대국의 점유율 상승**이 전망

- 북한은 전략적으로 **중국에 편중된 현재의 대외무역구조를 다변화 시키려 노력** 할 가능성

□ **북중 무역은** 2019.2월까지 하락세(전년동기대비)를 지속하다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인 2019.3월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로 반등**

- 중국 또한 UN상임이사국으로서 공식적으로 전례없는 대북제재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非제재품목과 필수재를 중심으로 대북무역이 증가**

□ 대북제재는 수입보다 수출의 제한이 더 커 외화수급이 어려운 북한은 중국과 무역이 증가할수록 무역적자가 더욱 심화되는 구조로 **중국과 무역증가는 북한측의 제재해제 수요 증가를 의미**

- 강화된 제재가 북한 무역에 반영된 **2017년부터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대폭확대**
  2016년(△5.6억$) → 2017년(△16.8억$) → 2018년(△20.0억$)

□ 2019년 상반기 북한-중국 무역의 특징은 **북한의 對中수출**이 여전히 일부 **非제재 광물(텅스텐, 몰리브데넘)**과 **임가공 제품(시계, 가발)에 한정**된 반면 **對中수입**은 한 품목에 편중됨 없이 대두유, 밀가루, 쌀, 생선분말 등 **非제재 식자재**와 비료, 플라스틱바닥제, 직물 등 **화학제품 위주로 고르게 분포**

- 강화된 대북제재이후에도 **非제재품목(식자재, 화학제품 등)을 위주로 북한의 중국수입수요가 지속**되는 반면 **북한의 중국수출은 非제재품목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큰 증가가 없어 심화된 무역적자 지속**

□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중국수입이 지속되며 특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북한-중국 무역의 증가는 향후 대북제재 완화/해제시 북한-중국간 무역의 급속한 증가 가능성을 전망하게 하는바 **북한의 對中무역 경도에 대비할 필요**

- 대북제재가 강화되기전인 2016년 북한의 중국수입품목 상위 20개 절반이 非제재품목(식자재/식료품, 섬유소재, 일부 건설자재 등)으로 2019년에도 중국수입품목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품목은 북한이 제재와 상관없이 수입수요가 일정하게 많은 품목**으로 **향후 초기 남북경협(대북수출)에서 우선적 고려대상**

<표3> 중→북 수출 20대 세부품목(2016 vs 2019 상반기(6월) 누계)

(단위 : 백만$, HS6)

2016				2019.6 누계			
순위	품목명	HS코드	금액	순위	품목명	HS코드	금액
1	대형화물차	870423	103	1	대두유	150790	50
2	대두유	150790	94	2	합성필라멘트직물	540769	44
3	합성필라멘트직물	540769	85	3	시계부품	911490	39
4	사과	080810	81	4	밀가루	110100	36
5	경유/윤활유	271019	75	5	질소비료	310210	29
6	휴대폰	851712	59	6	합성염색편물	600632	20
7	TV	852872	56	7	기타담배	240319	20
8	태블릿PC	847130	52	8	과립당	170199	16
9	합성염색편물	600632	49	9	사과	080810	15
10	화물용타이어	401120	43	10	인섬워딩	560122	13
11	휘발유	271012	40	11	정미	100630	13
12	판석	690890	39	12	폴리우레탄직물	590320	13
13	염색직물	540752	36	13	감귤류	080521	13
14	질소비료	310210	32	14	궐련담배	240220	13
15	플라스틱바닥재	391810	32	15	염색직물	540752	12
16	평판압연제품	721070	31	16	글루탐산	292242	12
17	폴리우레탄직물	590320	30	17	생선분말	030510	12
18	면티셔츠	610910	27	18	플라스틱바닥재	391810	12
19	오징어	030799	25	19	화물용타이어	401120	12
20	정미	100630	25	20	신발	640399	11

주: 2017년이후 상품 전분야로 확대된 유엔의 대북무역금수조치로 평시의 무역품목분석을 위해 2016년 북한-중국간 무역통계를 비교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북한 무역은 남북반출입 통계를 합산·종합하여 분석할 필요**

-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의 무역통계가 국제기구(UN, WTO)에 보고되지만 한국의 국내법상 북한은 대내거래로 분류되어 수출입 통계로 남북간 거래는 국제기구에 보고되지 않음

- 북한이 공식적으로 자국의 무역통계를 공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상대국의 수출입통계와 남북 반출입 통계는 북한 관련 상대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제지표**

- 단, 남북반출입 통계는 인도적 지원, 기기의 현지 이용만을 위한 단순 반출입, 원조성 차관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2010년 5.24조치전 반출입통계에 상당부분 포함되었음을 감안할 필요

- **북한 무역에 대해 국가와 거래 품목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에** 보고되는 북한상대국들의 무역통계와 함께 남북반출입 통계를 합산하여 분석할 필요성